

3野 '탄핵 굳히기' 24시간 비상체제

박근혜 탄핵 표결 D-1

밤샘농성·국회 경내 개방 추진
새누리 친박 찬성 의원들 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탄핵 굳히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기사 2·4·6면〉

특히, 야권은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중도 성향 의원들에 대한 막판 압박과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 대신 4월 퇴진'에 협조해달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 불가피론'으로 확연히 기울면서 탄핵 가결의 대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내 탄핵 추진 관련 기구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물 밀 접촉 결과를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탄핵 가결 정국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민주당 소속의원 121명 전원과 일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8일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며 탄핵 가결의 의지를 다진다.

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

회에서 "내일부터는 당내 모든 국회의원이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 가결을 위해 최대한 결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탄핵일 전날과 당일인 8~9일 국회 경내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탄핵안 표결이 정기국회 회기 만료 시간은 9일 자정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야권 공조 체제를 확인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3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손질을 하느라 90분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맹목하면서 탄핵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당내 비주류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 내부에서도 탄핵안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3당 탄핵 결의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 3당 결의대회에서 각 당 대표 등 지도부와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차은택 "최순실 요청에 장관·수석 추천...관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최씨에 써 준 내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나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국정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일 2차 청문회에서는 출석 증인들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광고감독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기획한 행사에 세 차례 참석했으며, 그때 최씨가 'VIP(박대통령을 지칭)가 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제가 먼저 부탁한 적은 없다. 제가 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가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차 감독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낀 것은 언제인가"라고 묻자 "2014년 최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최씨에게 요청을 받아 몇 명을 추천했고, 재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상철 전 교육문화수석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차 감독은 최씨의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과 관련,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장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며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때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도 최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연설문 고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PC에 팩스와 스캔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열핏 봤을 때 그것(연설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직원들이 7일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찾아가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발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정모 김정자 삼남개발 회장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후까지 실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청렴도...광주시 중위권·전남도 최하위

전남도교육청 하위권·광주시교육청 최하위권 '추락'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비리 문제가 터진 광주시는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남도는 최하위, 전남도교육청 하위권, 광주시교육청 최하위권 등으로 모두 정체 또는 추락했다. 〈관련기사 2면〉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7.19점으로 전체 5등급 중 3등급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로, 최근 비리 문제가 불거져 검찰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위에서 2단계 올라섰다.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23점 4등급으로, 전체 17개 교

육청 중 16위였다. 지난해 3위 2등급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전남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52점, 3등급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로 지난해와 같다.

전남지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1등급은 없으며 2등급은 여수시(7.83점)·순천시(7.70점)이며, 3등급은 나주시(7.66점)·광양시(7.51점)이다. 목포시는 7.13점으로 4등급이다.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1등급은 없으며 함평군(8.07점)·해남군(7.97점)·영광군(7.83점)·화순군(7.79점)·강진군(7.78점)이 2등급이었다. 신안군(7.00점)·고흥군(6.83)·무안군(6.81점)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시 동구(7.99점)·서구(7.95점)·광산구(7.82점)가 3등급을, 북구(7.61점)는 4등급을, 남구(7.40점)는 5등급을 받았다. 나주혁신도시 공기업의 청렴도는 한전KPS가 1등급(8.66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등급(8.39점), 한국농어촌공사 4등급(7.44점), 한국전력공사는 최하위권인 5등급(7.27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 중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54점으로 2등급을, 광주도시공사는 7.50점 4등급, 전남개발공사는 7.50점으로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다. 지방공단 중 광주환경공단은 8.48점으로 2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97점 4등급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수능' 표준점수 상승...국어·영어가 당락 변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영·수학 영역 모두 어렵게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라는 교육계 평가와 별개로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만 믿었다 예상 밖의 '불수능'으로 허를 찔린 수험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혼선을 조래한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험생에게도 이날 성적표가 배부됐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39점(0.23%) ▲수학 가형 130점(0.07%) ▲수학 나형 137점(0.15%) ▲영어 139점(0.72%)이다. 지난해 수능에 견줘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만 표준

점수 최고점이 2점 낮아졌을 뿐 수학 가형(3점), 영어(3점) 최고점은 상승했다. 지난해 A, B형으로 치러졌다가 올해부터 통합형으로 바뀐 국어 영역도 3점(B형 대비)~5점(A형 대비)까지 최고점이 올라갔다.

수학 나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역 시험이 전년도에 비해 어려웠다는 얘기가.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1등급 컷라인은 국어(130점), 수학 가형(124점), 수학 나형(131점), 영어(133점)이었다. 수학 나형은 1등급 컷라인이 지난해(136점)보다 5점 낮아졌다.

장광재 송덕고 진로상담부장은 "인문계·자연계 수험생 모두 국어와 영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